



두산 오재원(오른쪽)이 15일 사직 롯데전에서 5회 2사 후 우익선상 2루타를 친 뒤 3루까지 내달리다 태그아웃되고 있다. 롯데 3루수는 신본기.

사진제공 | 롯데 자이언츠

8승2패…‘5위 싸움’ 불 붙인 롯데의 질주

(8월4일부터 최근 10경기)

김원중 60이닝 1실점 3K…두산 타선 공룡 린드블럼 가세…투·타 균형 상승세의 힘 5위 넥센과 1.5G 차…중위권 경쟁 후끈

최근 10경기 8승2패. 4위 LG·5위 넥센과 1.5게임차. 롯데가 15일 사직 두산전에서 8-6 승리를 거두고 치열한 5위 경쟁에 다시 뜨거운 불을 붙였다.

롯데는 8월 1~3일 잠실 LG전을 모두 패했다. 포스트시즌 티켓이 걸린 8~9월 싸움의 출발이 매우 나빴다. 그러나 4일 사직 넥센전부터 15일 두산전까지 최근 10경기에서 8승2패를 기

록하며 4~5위 팀에 1.5게임차로 바짝 다가섰다.

롯데의 상승세는 투·타 균형에 있다. 선발진은 조쉬 린드블럼의 가세로 박세웅~브룩스 데일리~송승준~김원중으로 이어지며 위력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7월 말부터 조정훈이 필승조에 투입되며 배장호~박진형 그리고 마무리 손승락까지 이어지는 불펜 전력도 매우 강해졌다. 원손 스페셜 리스트의 약점을 제외하면 장시환, 윤길현까지 6회 이후 투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다양해졌다. 8회 투입되는 중책을 홀로 맡아왔던 윤길현까지 필승조에서 제외 될 정도로 불펜에 여유가 커졌다.

마운드 안정과 함께 타선도 시즌 초반의 위력을 되찾고 있다. 롯데 타선은 8월 13경기에서 74득점을 올렸다. 리그 2위 기록이다. 시즌 중반 장타력이 부진에 빠졌던 이대호도 이달 들어 홈런 3방을 때리며 타선을 이끌고 있다. 손아섭은 8월에만 홈런 5방을 날렸다.

15일 두산 선발 유희관은 경기 전까지 올 시즌 롯데와 2경기에서 13이닝 1실점으로 강했다. 그러나 롯데 타선은 이날 5이닝 만에 8안타 7득점으로 공략하면서 유희관을 무너트렸다. 불펜이 안정되면서 조원우 감독은 선발투수 교체를 한 박자 빠르게 운용하며 효율적인 마운드 전력 운용에 성공하고 있다. 두산전에서도 선발 김원

중이 투구 수 93개로 6회를 마치자 7회 곧장 배장호. 8회 이병우를 투입하며 추격을 따돌렸다. 9회 추격 점수를 내준게 욕의 티였지만 롯데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김원중은 60이닝 3안타(1홈런) 3삼진 3볼넷 1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시즌 5승(6패)을 올렸다. 지난달 2일 NC전 승리 이후 1개월 이상 승리가 없었지만 이날 두산 타선을 상대로 5회 2사까지 단 1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등 위력적인 투구를 했다. 최고 148km의 포심 패스트볼과 함께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포크 볼까지 다양한 공으로 두산 타선의 범타를 유도했다.

사직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장·창·학 키우기…미래가 더 기대되는 NC

(우원 장현식-좌완 구창모-사이드암 이재학)

김경문 감독 ‘3세 토종선발’ 육성 플랜

2009년 9월 삼성 김재하 단장은 이미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선동열 감독과 5년 재계약을 발표하며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선 감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삼성 감독은 5년 계약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3년은 성적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시즌 운영, 선수 육성 등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후임 사장과 단장이 와도 이 같은 기조는 유지 된다.” 물론 이 계획은 단 1년여 만에 폐기된다. 2010시즌 후 김응룡 사장-김재하 단장(부사장)-선동열 감독은 동시에 물러난다. 이후 삼성은 물론 그 어떤 팀도 감독과 5년 계약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롯데 조원우 감독의 경우처럼 2년 계약(2016~2017년)이 다시 등장했다.

감독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조범현 전 kt 창단 감독은 “팀의 미래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감독 재계약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육성에 방점을 뒀지만 구단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NC 김경문 감독은 2017시즌을 앞두고 3년 재계약을 맺었다. 4번 에릭 테임즈가 메이저리그로 돌아갔고 세대교체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었지만 안팎에서 한국시리즈 준우승팀 NC에 대한 기대는 컸다. 그러나 김경문 감독의 선택은 대대적인 리빌딩이었다. 시즌 초 NC 세대교체의 초점은 이호준~이종욱~손시현 그 다음을 준비하는 백업 야수진의 주전육성으로 보였다. 모창민, 권희동이 확실한 베스트 멤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김 감독의 시선은 야수진에 머물지 않

았다. 선발 투수진의 리빌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자신의 남아있는 계약기간 뿐 아니라 팀의 5~6년을 책임질 수 있는 토종선발 3명을 키워내겠다는 다짐이다.

김 감독은 “원손 구창모, 오른손 장현식, 그리고 사이드암 이재학이 모두 내년 시즌부터 선발 로테이션에서 뛰어난 투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투수 2명과 함께 좋은 구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강팀의 자리를 지키고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선발진 안정이 첫 번째 과제다”고 말했다.

구창모와 장현식은 모두 시속 150km 이상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구력에 문제점이 컸다. 김 감독은 두 젊은 투수에게 “10점을 줘도 좋으니 6회까지 버티라”라는 메시지를 자주 전했다.

구창모는 시즌 초 극심한 부진을 겪었지만 감독의 기다림 속에 풀타임 선발로테이션 완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볼 끝에 예리한 속구와 낙차 큰 변화구를 가다듬으며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하는 좌완 파이어볼러로 다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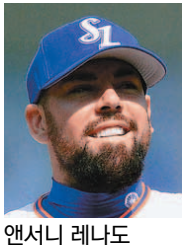
장현식은 13일 두산전에서 완봉승에 도전할

정도로 올 시즌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최일언 투수 코치와 함께 투구 폼을 간결하게 가다듬으며 제구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투구수 100개를 넘겨도 시속 153km를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다. 무엇보다 구창모와 장현식은 올해 만 20세, 22세다. 사이드 암 이재학도 28세다.

김경문 감독이 목표로 한 20대 토종에이스 3명은 좌완, 우완, 사이드암까지 세 가지 색깔을 갖췄다. 1군 데뷔 5번째 시즌인 올해 4번째 포스트 시즌 진출이 유력한 NC는 변함없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팀이다.

이경호 기자

가을야구 떨어진 삼성 외국인 교체 없이 GO



앤서니 레나도

삼성이 고심 끝에 결국 움직이지 않았다. 기존 외국인 선수진에 변화를 주지 않고 남은 시즌을 치른다. KBO 리그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9조[추가등록] 2항에 의하면 ‘8월 16일 이후 소속선수로 공식된 선수는 당해 연도 KBO 포스트시즌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삼성은 외국인선수 교체카드 2장이 모두 남아 있었지만 15일까지 단 한명의 외국인선수도 교체하지 않았다.

올 시즌 삼성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때 포스트 시즌 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위 규정이 큰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다. 다만, 남은 정규시즌 경기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포스트시즌과 무관하게 새로운 외국인선수의 영입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았다.

삼성의 외국인선수 중 가장 ‘아픈 손가락’은 앤서니 레나도(28)였다. 레나도는 시즌 초 가래 톳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이탈한 뒤 5월 말에 돼 서야 마운드에 올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첫 선을 보였지만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11경기에서 2승3패 방어율 6.80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설상가상으로 7월 27일 NC전에서 타구에 손을 맞아 중수골 기저부 골절상 진단까지 받았다. 레나도는 이후 수술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 사실상 삼성과 작별을 고했다.

또 한명의 외국인 투수인 재크 페트릭(28)은 7월 19일 롯데전에서 우측 내복사근 파열 부상을 입어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4주 결장이 예상됐던 페트릭은 현재 정상적으로 재활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페트릭이 재활 스케줄을 잘 마쳤다. 컨디션도 양호하고, 경과까지 좋다. 15일 퓨처스리그 경기서 실전등판을 가질 계획이었는데,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돼 일정이 밀렸다”고 근황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award@donga.com

비디오판독 혼란 야기 심판위원장 엄중 경고

KBO 규칙위, 9일 넥센-KIA전 논란 심의

“비디오판독 적용은 맞지만…”

KBO는 14일 KBO 회의실에서 규칙위원회를 열고 KBO리그 규정 적용 및 공식 야구규칙 개편작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넥센-KIA전. 3회말 KIA 김민식의 타구가 배트에 맞은 것과 관련해 심판진이 비디오판독 규정 3항 6호의 ‘타자의 파울/헛스윙(타구가 타석에서 타자의 몸에 맞는 경우 포함)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당시 무사 1·2루서 타석에 들어선 김민식이 번트를 시도했는데, 홈플레이트 앞에서 원바운드된 타구를 포수 박동원이 잡아 3루로 던졌다. 이때 이계성 구심은 파울을 선언했다. 타구가 김민식의 방망이에 두 번 맞았다고 판단했다. 넥센 장정석 감독은 항의를 했고,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을 하겠느냐”고 권유하자 장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결국 배트에 한 차례만 맞은 것으로 확인돼 최초 판정인 ‘파울’은 ‘페어’로 번복됐다.

그러자 KIA 김기태 감독이 나와 “이것은 비디오판독 대상이 아니다”고 강하게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진은 “타석 내에서 일어나는 파울 상황은 ‘포괄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는 시즌 전 심판진끼리 합의가 된 부분이다”이라고 설명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규칙위원회는 이날 심의 후 우선 “타구가 타자의 몸에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에 착용한 경기 용구나 배트에 맞아도 파울로 판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판독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BO는 심판위원회가 비디오판독 대상 범위에 대해 규칙위원회 결정 없이 내부적으로만 합의해 시행하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어 심판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한편 규칙위원회는 현재 국제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9조로 전면 개편한 야구규칙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내년 시즌 개막전까지 공식야구규칙에 대한 개편 및 재배치 작업을 완료해 KBO리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